

11장. 한국인의 사회심리

한국은 짧지 않은 역사와 좁은 국토에서 변변한 자원도 없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특이한 나라이다. 한국은 정과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적 특성을 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지연이나 체면 같은 특성을 보인다.



1. 한국인의 고유적 교류현상

1) 한국인의 교류정서 : 정

: 한국인의 대인관계를 기술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서

: 관계적 정서로서 정

- 정의 특징에는 상대방과 함께 하는 시간인 역사성, 가까운 공간에서 접촉하는 동거성, 상대에 대해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다정성, 상대방과 한 가족 같은 행동(밥 먹고, 자고 등)을 하는 허물 없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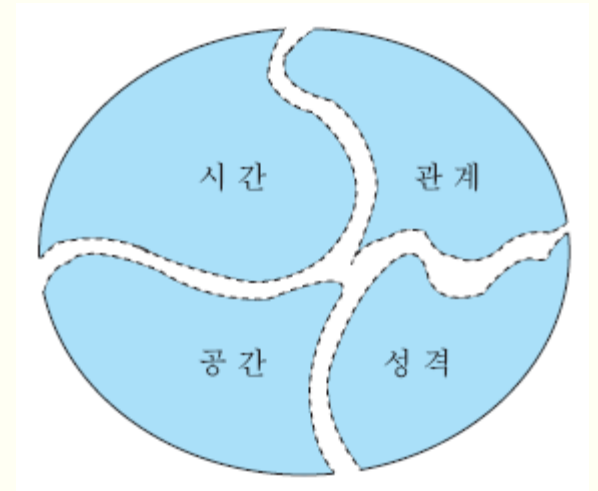
- 정은 작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보다 장기간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 저절로 형성되어 당사자들이 알기 어렵고 상대가 보여주는 느낌이나 행동을 통해 유추된다.

- 정의 감정에는 따뜻함이나 친밀감 같은 고운 정만이 아니라 부담스런, 미운 같은 미운 정도 포함된다.

: 성격특징으로서의 정

- 정은 대인관계 정서로정이 내면화되어 성격으로 인식된다(인정 많은, 다정한 등).

- 정 많은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남의 어려움에 공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무정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이기적이며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지적이고 완벽한 행동은 긍정적인 행동이지만 한국에서는 인간다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정이 드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한국인의 정이 개인주의나 사회정의와 거리가 있는 심리적 특성임을 보여준다.



: 정의 기능

- 서구에서는 개인의 매력이나 인격 등이 호감을 결정하고, 호감이 교류를 결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마다 당사자들 만이 공유하는 관계의 틀이 있어 미운정 고운정의 모순이 나타난다.
- 한국인은 정을 통해 상대에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진정한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또한 정 때문에 희생하고 상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 정 성향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비효율적인 회피방식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배가시키며 생활만족도도 낮다.

2) 한국인의 교류정서 : 한

: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한은,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타인에 비해 현저히 결핍되어 고통을 당하거나,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범했을 때 나타난다.

: 한의 정서 발생과정

- 욕구좌절을 겪어 분노나 복수심 같은 원의 감정을 느낌 -> 억제된 분노와 적개심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재해석(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비하를 하거나 팔자 탓을 함) -> 시간이 경과하면서 재해석했던 사건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끼면 감정의 기복이 생기며 한이 발생(이 때 한은 사회적 통로를 통해 발산되거나 예술이나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음) -> 한이 당사자의 감정에서 분리되고 객관화되며 당사자는 남의 일처럼 초연해짐

: 한은 남자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고, 한이 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며 억울한 심정을 유발한 당사자가 인정하고 보상적 행위를 하는 것이 한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심정의 교류

: 심정에는 어떤 감정의 이유나 배경이 함께 나타나는데 가령, 친구한테 섭섭한 심정을 느낄 때는 상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의 행동이 나에게 섭섭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 보통 마음 써 주기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 불편한 심정이 나타나지만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납득될 만한 이유를 찾게 되면 불편한 심정이 가라앉지만 그렇지 못하면 주변 사람에게 하소연 하거나 당사자와 대화를 시도한다. 이것을 심정대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심정이 받아들여지면 심정은 해소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관계가 소원해진다.

: 심정은 순수한 것

- 한국인은 마음과 심정이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보며 상대가 자기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심정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도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며 오해를 풀고자 자신의 속마음(심정)을 전하고자 한다.

사례> 기업에서 술자리가 자주 벌어지는 것도 역할과 업무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보인 행위의 뒤에 가려진 서로의 심정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 심정소통과 사리소통

- 관계집단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을 심정소통이라고 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의 역할을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로 상대와 소통하는 것이 사리소통이다.

〈표 11-1〉 심정을 상하게 하는 요인

반응 유목	빈도
1. 믿었던 친구였는데 내 믿음이 깨져서	34
2. 내 마음을 몰라준다, 무심하다	18
3.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다	17
4. 나를 무시한다, 독선적 태도	33
5. 내 자신이 비참해서	10
6. 내가 해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심하게 대한다,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서	24
7. 양면적인 행동	5
8. 기타	9
총	150

4) 체면

: 한국인은 체면을 중시하는데, 체면에는 남을 대하는 외적 요소와 떳떳함이라는 내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떳떳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기준에 못 미쳐 느끼는 자괴성 부끄러움과 남이 알게 되면 느끼는 창피성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 창피성 부끄러움이 체면행위로 나타난다.

: 체면은 서열관계나 공식관계에서 나타나며 친숙하거나 모르는 관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체면을 잃으면 권위와 영향력이 상실되고 인격도 의심 받게 되기 때문에 체면을 유지하려고 핑계나 빈 거짓말을 한다.

: 한국인 인사치레에서 빈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은 일본에서 혼네(본심)와 타테마에(남에게 보이는 것)의 구분과 유사하지만 타테마에는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려는 것인데 비해 체면은 자신의 자기 과시성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 체면행위

- 체면은 지키는 체면과 내세우는 체면이 있는데, 지키는 체면은 상하관계에서 체면이 실추되는 상황을 막거나 회복하는 것이고 내세우는 체면은 호칭 인플레, 허세 등처럼 자기 존재감을 알리려는 체면행위이다. 한국인이 많이 쓰는 방어기제 중 반동형성은 허세와 관련되어 있다(속담 - "빈 수레가 요란하다""빛 좋은 개살구").



- 체면은 지나치면 거리감을 주고 위선적으로 보이지만 안 처리면 인격이 의심 받고 믿음을 잃게 되므로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한국인의 호화혼수나 대형차 선호 유명 상표 선호도 과시성 체면유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얼굴유지 행위의 보편성과 문화차

- 한국인이 체면을 차리는 것처럼 서구인도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공손성의 규범을 보인다. 공손함은 상대가 자신보다 상위에 있을수록, 자신과 거리가 멀수록,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정도가 클수록 증가한다.

- 한국 같은 고맥락 소통사회에서는 표현된 내용이 상호관계의 맥락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지만 미국 같은 저맥락 소통사회에서는 사람 간의 관계가 평등함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소통의 내용이 소통양식을 결정한다.



5) 눈치

: 눈치의 기능

- 눈치는 생활의 지혜이며(절에 가서도 눈치만 좋으면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의사소통의 기제이고(내용과 의도를 같이 읽어야), 서열관계에서 친분이거나 관계특성에 따라 아랫사람이 보이는 겸손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눈치의 피해는 아랫사람이 보기 때문).

6) 서열적 교류와 공손성의 문화

: 한국인의 교류는 서열성에 기초하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존비어 발달을 통해 알 수 있다. 대인교류에서 나이나 지위 같은 서열정보의 확인이 중요한 것은 적절한 존비어의 사용이라는 사회규범이 작용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후배가 상사가 되면 사직을 해야 하는 원칙).



: 공손성의 작용에서 나타나는 문화차이

사례> 사회적 거리감과 지위를 변화시키며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하였을 때 한국인은 지위가 사회적 거리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으나 미국인은 사회적 거리감의 효과만 관찰되었다.

: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사고와 가치가 확산되었으나 존대어의 엄격한 사용은 변함없이 요구되고 있으며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을 강제하는 형식적 권위주의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

사례> 취업추천서를 윗사람에게 부탁한 경우에 아랫사람에게 부탁한 경우보다 글자수가 70% 많았다.

: 서열의 위치에 따라 반응유형이 달라지는 것은 서구사회에서도 나타나는데 사회지배이론에 따르면 서열이 낮은 사람이 취하는 위협행위에 대해 상위의 사람은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은 사람이 화해적이고 용서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2. 한국인의 집단주의: 문화심리적 특징

1) 가족주의(우리성)

: 집단주의 문화의 원초적 단위는 가족이며 가족 내의 화합은 만사의 근본으로 여기며 이것은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 한국의 가족집단의 특성

- 한국에서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원리가 자주 위배되어도 관계가 잘 유지되는데 이것을 교환관계와 구분하여 공동체 관계 또는 우리성의 관계라고 한다.

: 우리성

- 한국인의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라는 말이 가진 사회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정적 연대감(55%, 정, 친밀감, 상호수용), 동류의식(16%, 동질성, 유대감)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개인주의 문화인 캐나다에서 "우리"는 개인의 집합(60%)과 취미집단(15%) 등이어서 한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 일본인의 "우리"는 유대성, 동질성, 공통성 등으로 집단귀속적이거나 집단동일시적 우리의 특성을 보이며 한국과 달리 함께 취미활동 같은 집단활동을 함께 하면 느끼지만 한국에서 "우리"는 가족적인 정을 느끼는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 부모의 영향력과 수용심리

- 한국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인고를 감내하는 등 자식을 감정 동일체로 여기며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 대해 심정적으로 여리게 만들어 부모에 따르도록 한다.

- 부모의 신뢰를 강하게 지각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믿음도 긍정적이고 자기존중감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헌신에 대한 지각은 소년 문제행동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어머니에 대한 배려심이 아동에게 강한 동기를 촉발시키며 즉각적인 욕구충족 행위를 지연시키고 바람직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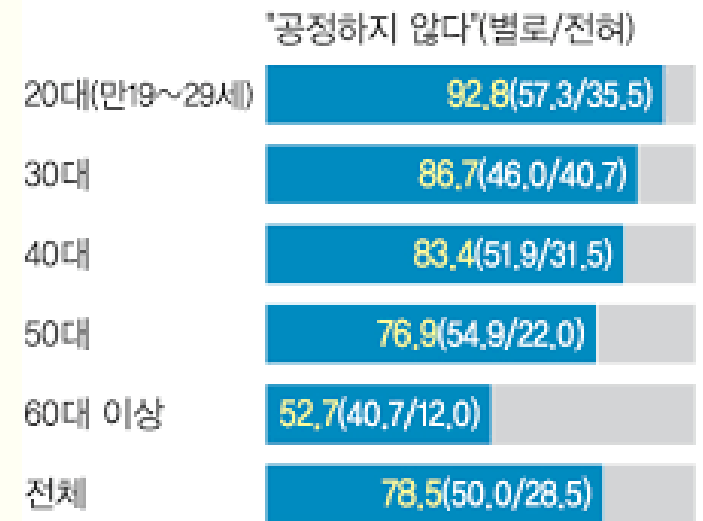
사례> 고생하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고 초등학생이 힘들어하는 원손으로 또박또박 글자를 옮겨 쓰는 일을 시켰을 때 보상을 받는 대상이 엄마일 때가 자기 일 때보다 더 오래 지속하였다.

: 연고주의

- 한국사회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을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시 하는데 한국인과 미국인의 소속집단을 비교한 결과 집단의 수는 차이가 없지만 미국인은 자발적 탈퇴가 가능한 집단인데 비해 한국인은 비자발적 연고집단이 대부분이었으며 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회사에서 옆 부서의 상사가 연고로 연결된다고 알게 되면 더 친근한 행동을 보일 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연고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정을 나누기보다 자신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연고주의 관련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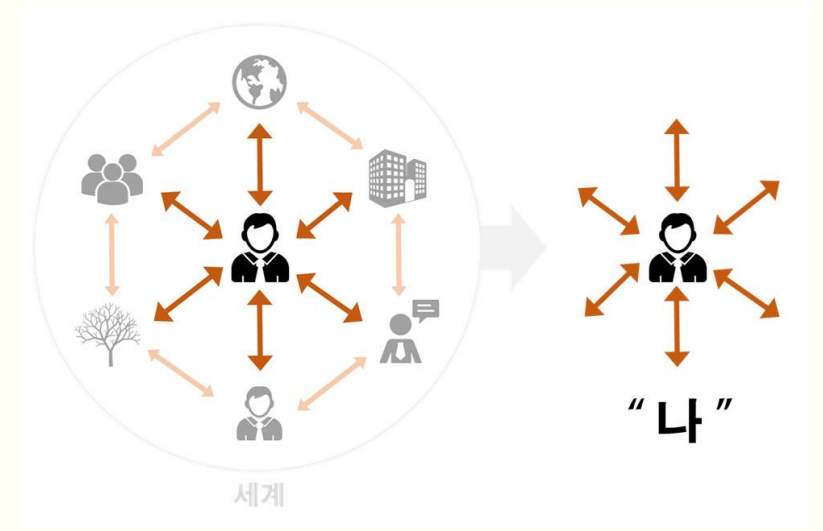


- 연고주의는 가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 주지만 보편적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례> 현대사회에서 연고 바탕의 사적 신뢰가 공적 신뢰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일제와 군부통치 동안 정보를 독점하고 연고가 있는 일부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관계주의

: 한국사회의 집단주의는 집단위주보다 관계위주로 진행되며 그 점에서 관계주의로 잘 기술될 수 있다. 관계주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관계가 연고 같은 비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보인다.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관계망과 그 속에서의 위치에 의해 정의되므로 좋은 연결망(학연 등)을 확보하려는 관행이 보편화된다.

; 한국사회의 문제로 정치인의 부정부패나 부조리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통치권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과 무관하게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집단주의보다 관계주의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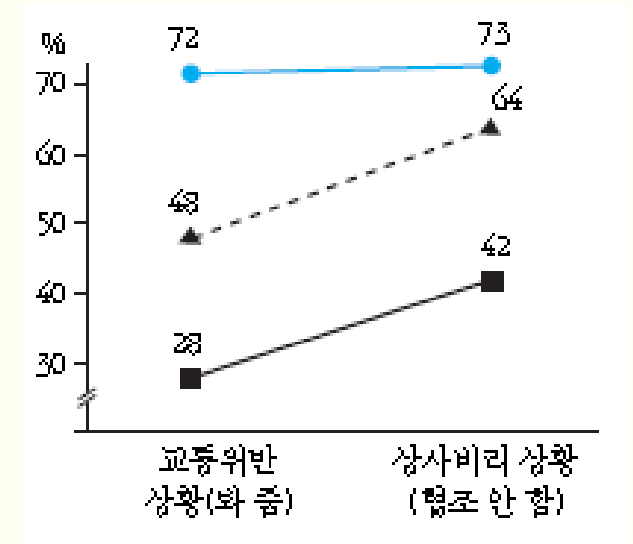
: 공과 사의 갈등

- 한국인은 흔히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데 이것은 가족 관계를 이상적 관계로 상정하고 모든 관계를 우리성 관계로 가져가는 심리 때문이다. 우리라는 인식이 작용하는 관계에서는 개인적, 교환적 교류행위가 부적합하다.

사례>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 학교라는 공적 공간과 가족공간 간의 규범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음(가족관계를 관계의 원형으로 보고 이를 확산시키는 경향)

- 공정과 인정이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황 등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인정 지향행위가 옳다는 경우는 8%였지만 다른 사람은 인정지향 행위를 할 것으로 본 경우가 64%였고, 당사자가 된다면 42%가 인정지향 행위를 할 것으로 보았다.



3. 한국인이 지닌 가치관

1) 가치관의 변화 양상

: 개인주의의 확산과 가치 혼재양상

- 한국은 집단주의가 강한 농경문화였으나 서구적 교육제도와 산업화에 의해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어 전통적 가치를 대체하거나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사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라 대 자신과 가족"을 비교했을 때 후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1970년대는 41%였지만 2010년에는 89%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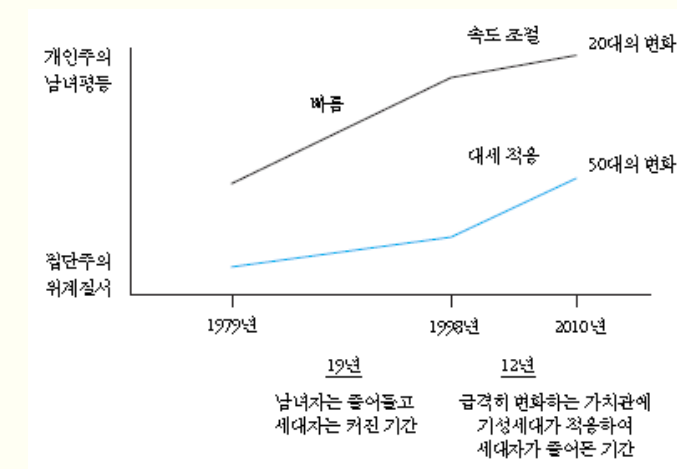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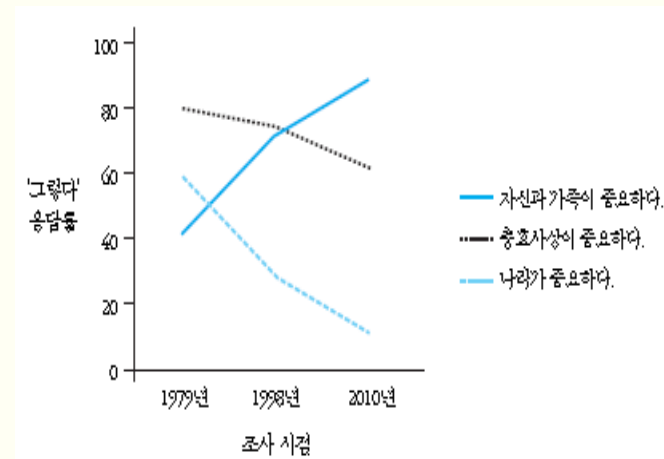
-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이중적 가치체제가 혼재하고 있는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중년세대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례> 386세대에 대한 조사에서 전통적 가치관인 집단중심주의가 높게 나오지만 역할중심주의("현모양처로 여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낮고 현대적 가치관인 개인중심주의("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우선이다")나 실리중심주의("죽은 후 명예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가 더 높게 나왔다.

: 위계적 가치 -> 수평적 가치의 지향

- 집단주의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중시하는데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탈권위주의 경향이 증가하면서 수평적 평등성을 중시하는 사랑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사례> 30년간 20대에서 남녀평등의 가치는 빠르게 자리 잡았으며, 남녀평등의 가치관에서 세대차이가 많이 사라졌다.



: 물질주의의 확산과 탈물질주의의 부상

- 한국사회는 근대화 추구시대를 거치면서 물질적 가치의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사례> 1970년대("출세가 효도")-> 90년대는 줄었으나 2010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64%가 동의

-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서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삶의 질을 강조하고 언론의 자유나 시민의 정치참여를 중시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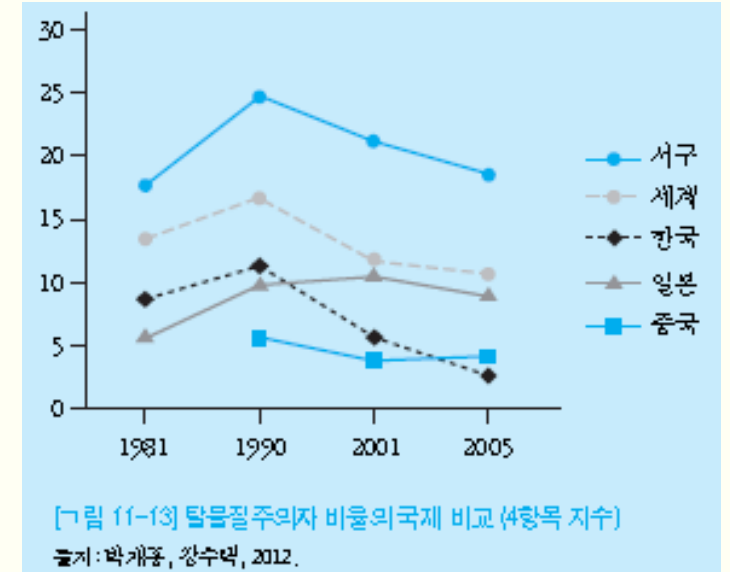
사례> 영호남의 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물질주의자는 25%, 탈물질주의자는 51%로 나타났으며 탈물질주의자들은 보수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례> 한국은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이 5% 정도로 미미한데 그 이유는 소득수준이 같아도 복지수준과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면 탈물질주의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취업난의 영향도 존재).

: 이상적인 인생관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상적 인생관을 조사했을 때 1970~80년대까지는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고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상이 가장 많이 추구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 그 선호가 줄어들고 현실을 타개하는 적극적인 인생관이 가장 선호되고, 인정 있고 우애 있는 대인관계를 추구하는 인생관도 선호되었다.

- 가장 선호되지 않는 인간상은 자의적 만족과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국인이 자기수양과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IMF나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금욕과 절제의 문화가 향유의 문화로 변해가고 있으며 인생을 윤희하게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2) 가치의 혼재 양상 분석

: 가치 측정의 방식

- 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누구에게 물었는지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잘 해석해야 한다.

사례> 리커트식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사회가 개인주의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시대에서 현저한 특징이 영향)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 "나는 누구인가?" 식으로 질문하고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하면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문화적 특성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 가치 측정의 차원

- 설문지에서 단일 차원으로 제시될 때는(집단주의-개인주의) 반대위치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각기 다른 영역의 가치로 공존할 수 있다.

사례> 개인수준에서 독립적 자기(개인주의적 성향)와 관계적 자기(집단주의적 성향)는 대립하기 보다 공존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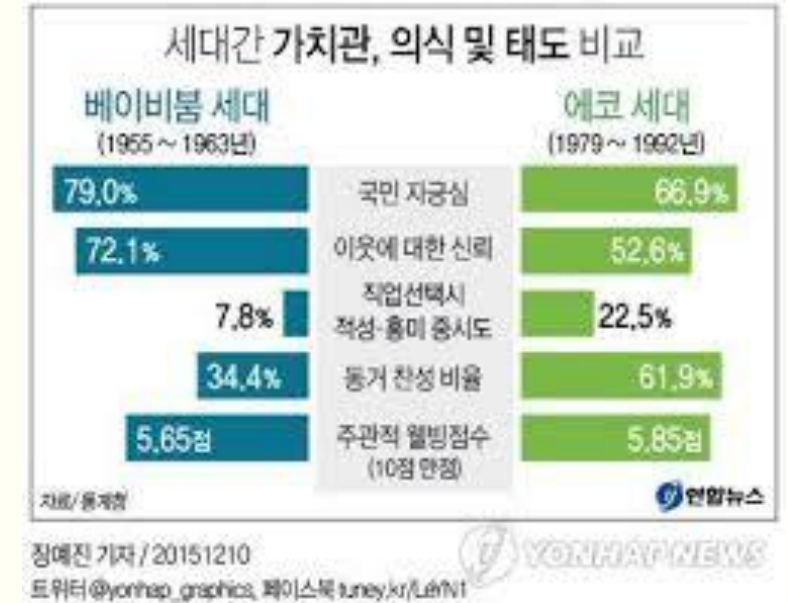
사례> 한국인은 독립적 자기성과 관계적 자기성이 모두 높지만 일본인은 독립적 자기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 문화 내 개인차

- 동일한 문화 내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둘 다 높은 사람, 둘 다 낮은 사람도 있고 한 쪽만 높은 사람도 있다.

사례> 중국 학생 중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미국 학생 중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보다 개인주의적 행동양식을 보인다.

사례> 국내조사에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주의성향을 보인다.



4. 한국사회의 세대 구분과 세대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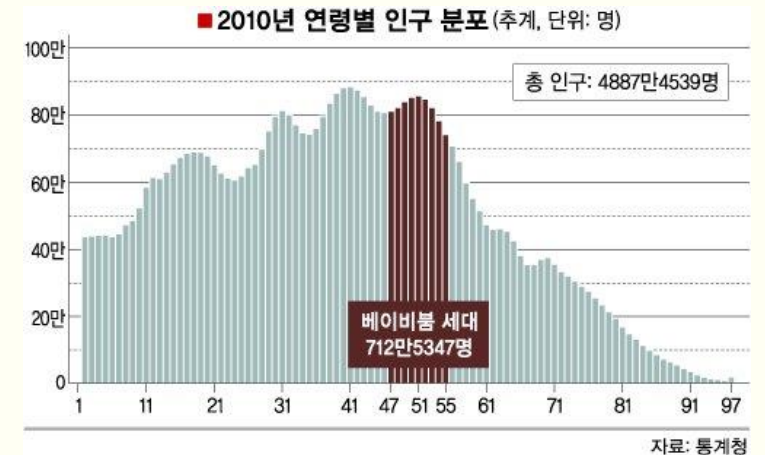
1) 베이붐 세대

: 한국전쟁이 끝난 시점에 태어나 1960년대 중엽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태어난 세대(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늘어난 세대를 지칭)

: 아동기에는 굶주림을, 박정희 정권의 반공, 경제개발을, 청년기에는 유신정권의 공포를, 전태일의 노동운동, 광주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동구권 붕괴 등을 경험한 세대

: 군부독재에 대한 반감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IMF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험과 북한에 대한 혼란스런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이들은 불확실성에 길들여진 세대가 되어 보수도 진보도 아니게 되었으며 출세를 성공으로 아는 세속적 열망이 강하고 체제를 수용하고 정당화하는 심리가 강하다.



2) 386 세대

: 1960년대에 출생하여 80년대에 대학생활을 한 사람으로 컴퓨터 사용과 정보화를 경험하고, 유신체제, 박정희 피살,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항쟁, 88 올림픽을 경험하였다.

: 부모세대의 근면으로 아동기에 굶주림을 겪지 않은 첫 세대여서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었으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눈뜨고 사회제도의 모순에 비판적 눈을 갖게 되어 미국의 제국주의적 특성에 눈을 뜬 첫 세대로 민주화 세대라고도 부른다.

: 386세대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6월 항쟁과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군사정권과 그 배후의 미국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되었고, 1990년부터 활발해진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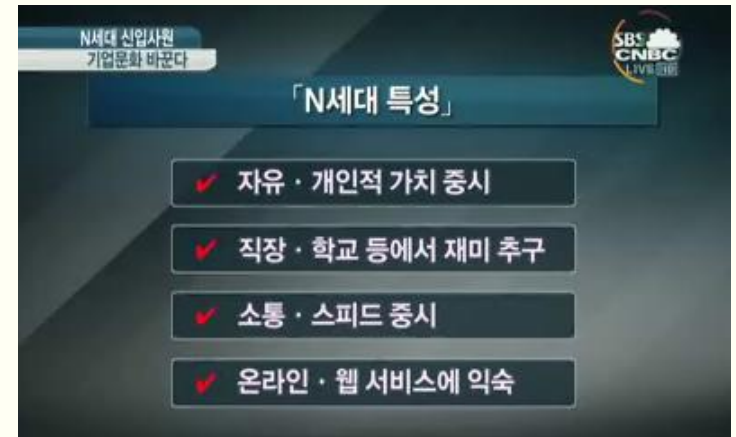
3) N(etwork) 세대

: N 세대는 미국의 정보사회학자인 Don Tapscott이 사용한 것으로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베이비 붐세대의 자녀로 태어난 세대이다.

: 정보화에 익숙하고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여 앞 세대가 디지털 환경을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했다면 N 세대는 사람들과의 일상적 상호작용,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 광우병이나 미선, 효순 사건에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발적 참여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촛불세대라고도 한다.

: N 세대는 소비가 필수품 소비에서 문화적 소비로 변화될 때 자란 세대이며 개성적이고, 주체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한다. 낯선 사람에 대한 반감이 적고 연고주의나 성역할 남아선호 등의 전근대적 사고에 반감을 보인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나가는데 관심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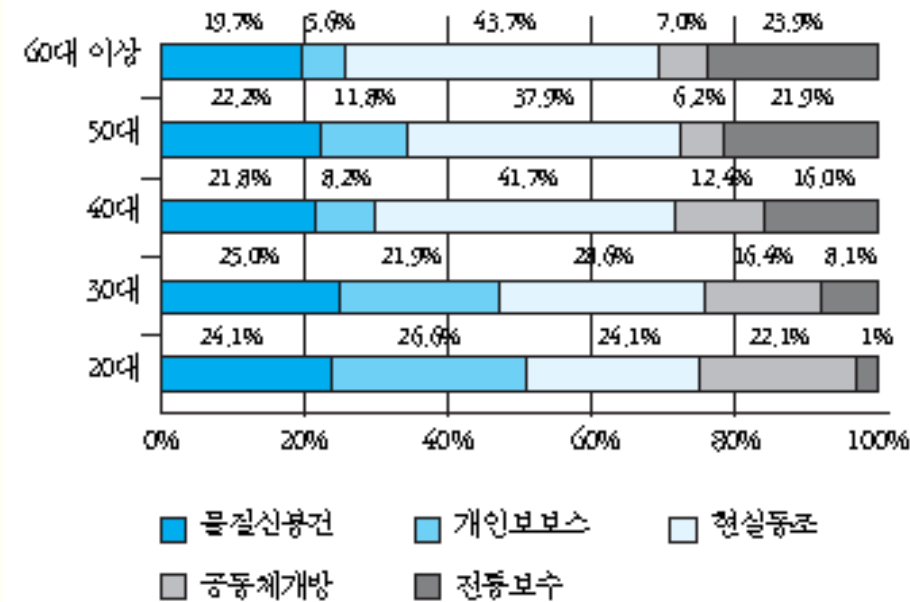
: 이들은 일상화된 경쟁 속에서 기득권 층과 먹고 살기를 위한 자리싸움을 벌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당한 것으로 여기며, 만성적 취업 불안과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4) 세대와 가치관의 유형

: 세대별 특징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나 오해(부모-자식간 갈등, 연령간 갈등 등)가 발생하며 같은 세대라도 생활경험의 개인차가 커서 때로는 개인차가 세대차이 보다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세대차이와 같은 세대 내의 개인차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이들 간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례> 2003년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생활양상을 파악하고 유형을 전통주의적 보수형/물질주의적 신봉건형/현실주의적 동조형/개인주의적 보보스형/공동체적 개방형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많은 형은 현실주의적 동조형이며 가장 적은 형은 전통주의적 보수형이었다. 세대간 비교에서 20~30대에는 개인주의적 보보스형과 공동체적 개방형이 많으나 40~50대는 전통주의 보수형이 많았다.



5.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 무한경쟁의 대가

: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해왔으나 80년대 까지 OECD 평균이 못 미치던 자살률이 2010년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자살은 개인적 사건으로 여기지만 급격한 증가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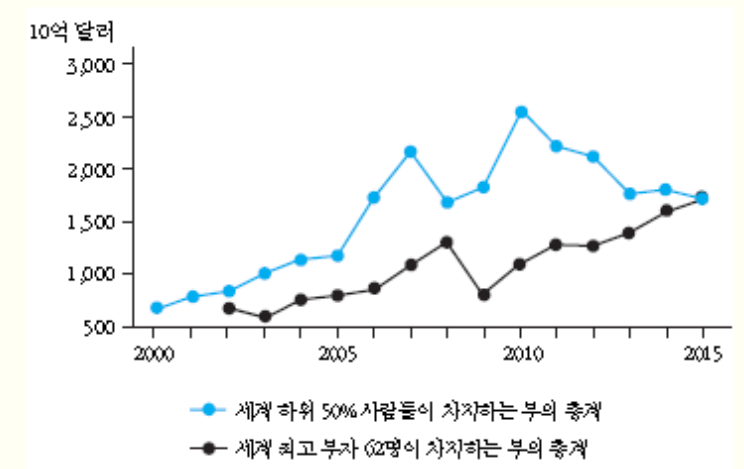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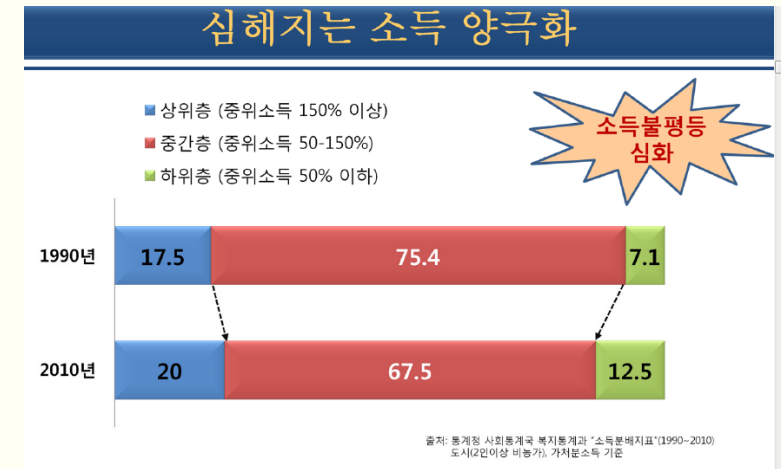
1) 소득의 불평등 심화와 그 영향

: 성장위주 경제정책론자는 낙수효과로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들이 그 혜택을 나누어 가진다고 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례> 100대 기업이 고용에 기여하는 비중은 4%이지만 이익의 60%를 가져가고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이익의 30%를 나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1/2, 초대기업의 1/3이다.
사례> 전국의 성인남녀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86.5%가 소득격차가 크다고 답변

: 불신의 확산으로 공동체 붕괴

- 소득 불평등(지니계수로 측정)이 심화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되고 사회적 자본이 위축된다. 또한 하위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고, 남을 믿기 보다 남들이 자기를 이용하려 든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감도 떨어진다.

사례> 사람들이 타인을 믿기보다 경계하게 되면 미국사회에서 남에게 위압을 주는 SUV나 RV 차량의 판매가 증가한다.



: 정신건강의 악화

- 소득 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신질환의 발병이 높으며 기대수명도 낮고 비만률도 높다.

사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정신질환 유병률이 5년 동안 20% 증가하였으며 불안장애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 공동체가 붕괴되면 자기만족과 과시를 위해 물질주의적 신념을 강하게 가지며 지위재(명품, 사치품) 소비를 통해 남들과 다름을 과시하려고 하는 물질주의적 가치를 보이며 친구와의 만남, 가족생활, 여가활동을 희생하기 때문에 행복감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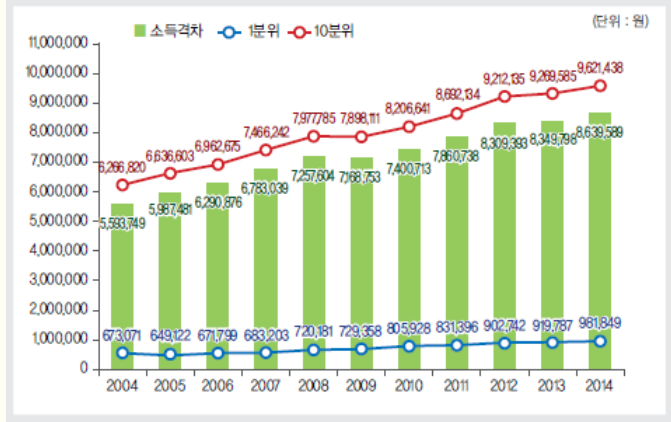
: 학력경쟁을 통한 세습사회 출현

- 소득격차가 증가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면 자신을 더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스펙을 쌓게 되며 부모는 이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교육비의 지출 증가이며 상위소득 계층과 하위소득 계층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게 된다.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가 새로운 신분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사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학력의 세습(부모가 고학력일 때 본인도 고학력), 직종 및 계층세습의 양상이 정보화 세대(N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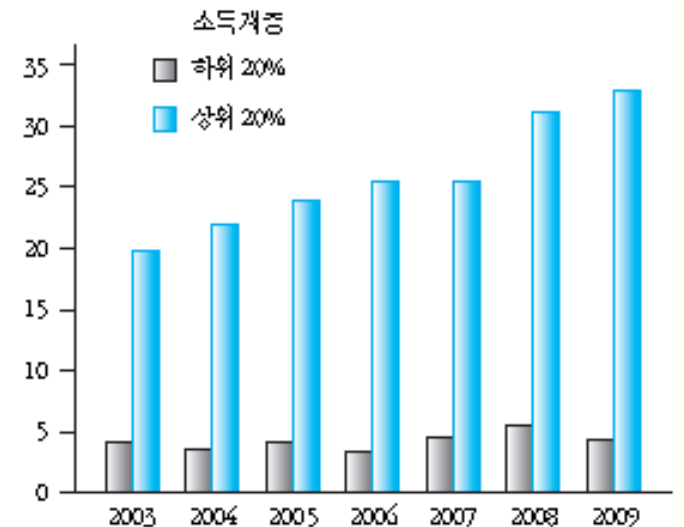
사례> 학력 및 출신대학의 서열에 의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권 대학 졸업자일수록 높고 고학력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학력은 결혼, 친구관계, 거주환경, 자기실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상/하위 소득 격차 추이 소득 1분위 및 10분위 기준



주: ① 소득 1분위는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10구간으로 등분하여 각 구간별 소득을 평균한 것 중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이며, 소득 10분위는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 한국사회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이 만성화되면서 학벌이란 공동체적 성격이 학력이란 개인적 현상으로 변화되었고 같은 대학 안에서도 학과를 차별하고 캠퍼스를 차별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서 학력차별이 많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8.6%, 약간 존재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8.3%에 이른다. 학력은 취업, 승진 및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남들보다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스펙경쟁에 들어가게 되며 일찍부터 그것에 실패한 저학력 취업자나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긴다.

: 희망의 상실과 이타적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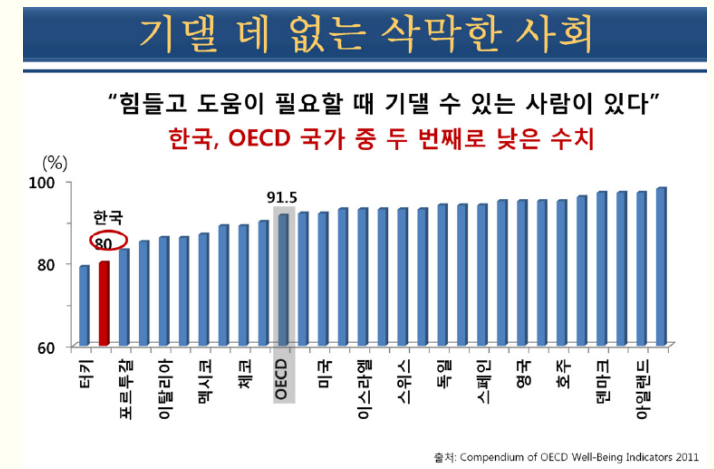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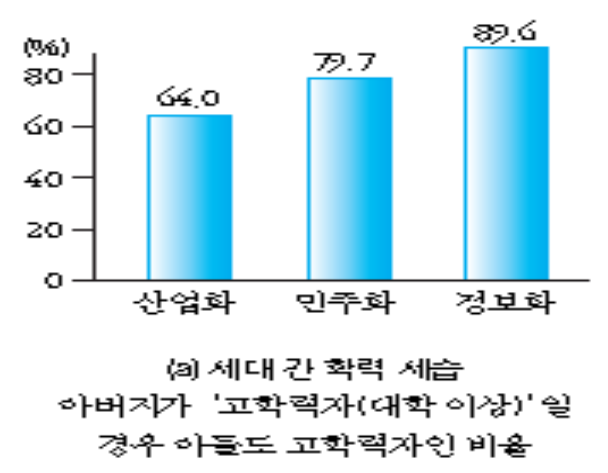
- 한국은 현재 희망의 상실을 겪고 있다.

사례> 빈곤층의 절반에서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국가에 대한 비교에서 한국만이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더 비관적이다.

- 소득격차와 희망상실의 원인을 개인에게 묻는 시각

사례> 86.5%가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고 느끼지만 실업자에 대한 지원에 동의하는 사람은 57.5%이며 그 원인이 실업자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불안한 사회에서 자기가 가진 자원은 없고 믿을 사람도 없으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보통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편이다.



- 자살의 대인관계이론(Joiner, 2005) : 외톨이가 되었다는 소속감의 좌절과 주위사람에게 짐만 되고 있다는 자책감이 결합하여 자살욕구를 느끼게 하며, 자살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 자살행위가 발생한다.

- 여성은 남성보다 대인관계의 비중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상처도 많고 자살도 많이 생각하고 시도도 많이 한다. 그러나 치사율은 남성이 더 높다.

: 경쟁을 심화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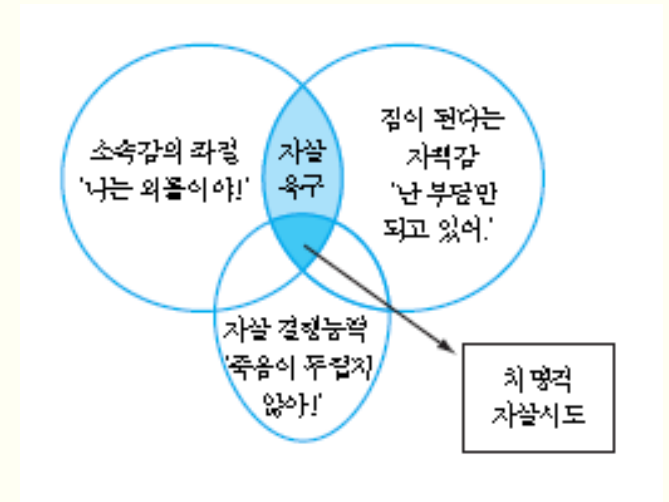
-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되기 전에 한국은 농경사회의 특징인 집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활을 유지하였고 서열을 중시하던 유교문화의 영향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해 약화되어 과거의 신분제도 대신 재력과 그것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 인맥, 자기관리가 중요해졌다.

- 인성과 재능도 열심히 노력하면 키울 수 있다고 보는 한국인의 성장론적 인성관이 모든 사람을 자신의 비교대상으로 하고 끊임 없는 자기계발과 자기관리로 몰아가고 있다.

: 대책

- 한국사회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가져온 경쟁으로 인한 비용이 이익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 헬조선의 현실을 벗어나려면 교육과 연대가 필요하다. 경쟁체제를 가져온 교육과 평가제도를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원하는 제도로 변화시키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공유하고 퍼뜨리는 모임의 구성과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